

오늘,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도내 고3 재학생 · 졸업생 1만7198명 응시... 고1 · 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치러져

1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일제히 실시된다. 6월 모의평가는 고3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어 '수능 중간평가'로 불린다. 6월 모의평가에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198명이 응시하며, 이 중 재학생은 1만5,648명, 졸업생은 1,550명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영역,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및 EBS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평가 결과는 7월 6일에 발표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영역 및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기재되며,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분리시험실과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희망 시 온라인 또는 문제지 수령 후 재택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 성적은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한편 같은 날 6월 고1·2 전국연합학

력평가도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이번 평가에는 도내 107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만6,180명과 2학년 1만 5,02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도내 고1 학생들은 처음 참여하는 전국단위 평가로, 학생의 학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수능체제의 문제 유형과 수준에 적응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유효성 중등교육과장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능 응시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 난이도 및 문제 유형을 결정한다"면서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어 수능을 앞두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동관리협의회 개최

1~2일 전주 라한호텔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책 모색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47차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5일 체결한 2022년 단체(임금)협약에 대한 평가와 2022년 단체(임금)협약서상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이행을 위한 사전협의가 다뤄진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현황 공유 및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 둘째 날에는 전주한옥마을 및 경기전 투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영대 행정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에 대한 평가의 자리인 동시에 2023년 집단 임금교섭을 위한 사전준비의 장이 될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현황 및 자료 공유를 통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내년 3월 개교 신설유치원 교명 최종후보 선정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은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유치원(가칭)전주문정유치원 외 1개원의 최종 교명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가칭)전주문정유치원 교명으로는 '전주문정유치원 이, (가칭)전주여유유치원 교명으로는 '전주늘푸름유치원'이 각각 신설 유치원의 최종 교명 후보로 선정됐다. 교명 최종후보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됐으며, 선정된 교명은 '전라북도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063-270-6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지난달 3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주 1·2·3학교군 학부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가 열렸다. 서거석 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

서 교육감, 전주교육지원청서 전주 학부모 · 교직원들과 소통
챗GPT와 관련 “수업 활용 동영상 만들어 흥미 게재방안 검토”

서거석 교육감이 전주 관내 학부모 · 교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주 1·2·3학교군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감 토크에는 전북도의회 진형식·강동화·김희수·최형열 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서거석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 △기초학력 책임제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과 조화 △인사제도 개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학부모는 "제가 어릴 적에는 선생님이로부터 교육적 체벌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부모들이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른 학부모는 "최근 챗GPT(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교직원은 "학생이 900명인데 상담교사가 1명뿐"이라며 "상담교사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얼마 전까지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조례만 있었는데, 이를 교육인권센터와 교육인권조례로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는 인권과 교권을 함께 보호해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실무부서와 상의해서 챗GPT가 실제로 수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대만 대중과기대학과 교류 폭 넓힌다

2013년 기본협정 체결 후로

학생 교류 등 위해 협정 연장

“글로벌대학 위한 밑거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대만 주요 국립대학 중 하나인 대중과기대학과 실질적인 교류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만 대중과기대학과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 전북대는 지난날 31일 학생 교류를 보다 구체적인 교류를 위해 교류협정을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대학은 대만 대중사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 1919년에 개교했다. 2013년부터 교류를 이어오며 그동안 182명의 대중과기대학 학생이 전북대에서 공부했다.

이날 대중과기대학 사준핑(謝發宏) 총장 등은 전북대를 찾아 양오봉 총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 대학 간 인·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교류협정식도 가졌다.



지난 2013년 대만 대중과기대학과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 전북대는 지난날 31일 학생 교류 등 보다 구체적인 교류를 위해 교류협정을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준핑 총장은 "교류협정 연장체결을 위해 가장 우호적인 자매대학이자 한국 최고 명문대학인 전북대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양 대학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교류가 더 활성화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오봉 총장은 "대만 대중과기대학과의 이번 교류 확대는 우리대학

이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협력이 학생과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양교 학생들이 더욱 넓은 세계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현장실습 조례 제정 환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도의회 의결 관련

“현장실습 조례 제정 환영합니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정우식)은 지난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의결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조례가 지난날 26일 제40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우리 지역 전주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너는 소희'의 울림으로, 지난 3월 초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면서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이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제안을 받아 곧바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을 비롯한 유관 시민단체,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해 왔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희·김대중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지도 감독 의무, 학교장의 지도 점검 의무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실습 중 신체적, 정신적 위험 발생이 우려될 때는 실습 거부나 중지도가 가능케 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과 지원의 완성형이 아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은 보다 최선을 다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관리 감독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현장실습생을 폭행이나 강제근로, 중간체취,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근거가 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은성 기자



지난달 31일 전북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 먹거리 가치 실천

전북대-농수산대-농식품유통공사, 협약 체결

청년 농어업인 육성 · ESG 실천 확산 등도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가치 실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지난날 31일 전북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정현출 총장, 김춘진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에 협력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농수산푸드테크 등 미래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농어업 분야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실천 문화 확산과, 친환경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인 '그린푸드 데이' 등을 공동 진행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촉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북대와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의 교육과 동아리 활동 등 대학 생활과 관련한 교류와 협력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대포 기관들이 함께 유익한 논의와 협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3개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농어업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에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갔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예비교사 아카데미’ 운영

도내 교 · 사대 학생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5개 대학 교직원 이 수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예비교사 아카데미는 교대 · 사대생들의 초 · 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교원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5개 대학에서 1,000여명의 학생이 신청, 5월 30일 개강해 오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아카데미는 전북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 사례 △전북대학교의 운영 중점 사항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한다. 또 현장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철학 및 학교 현장 실무를 안내해 예비교사의 학교 적응 능력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각 대학의 학교급에 맞춰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원을, 사범대학에는 중등교원을 강사로 지원해 각 대학이 요구하는 정책 및 활동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